

여천NCC, 에틸렌 35만톤 증설

2006년 No.1 77만톤으로 확대 ... 아시아 주요 플랜트 신증설 붐물

여천NCC가 에틸렌(Ethylene) 생산능력을 77만톤으로 확대한다.

Platt's에 따르면, 여천NCC No.1 크래커는 2006년 12월까지 에틸렌과 프로필렌(Propylene)을 각각 35만톤, 20만톤 증설해 생산능력을 77만톤, 48만6000톤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여천NCC는 10월20일-11월30일 SM(Styrene Monomer) 14만톤 플랜트의 생산능력도 28만5000톤으로 증설하고 있으며 증설이 완료된 이후 내수 외 생산물량은 전량 중국으로 수출할 방침이다.

삼성토탈 역시 2007년 6월까지 대산 소재 SM 생산능력을 87만톤으로 확대해 중국 수요에 대응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아시아 주요 석유화학 신증설 프로젝트

(단위: 1000M/T)

구 분	회사명	소재지	생산능력	비 고	증설량
에틸렌	여천NCC No.1	여 천	770	2006년 12월 완공 계획	350
	Chandra Asri	Anyer	590	2007년 중반 완공 계획	70
	TOC	MapTaPhut	730	2006년 10월 완공 계획	40
	Jilin	Jilin	60	2005년 10월 완공	22
프로필렌	여천NCC No.1	여 천	486	2006년 12월 완공 계획	200
	CSPC	Guangdong	400	2005년 12월 가동 예정	
벤젠	Mitsubishi	Kashima	170	2008년 1월 완공 계획	
P-X	Mitsubishi	Kashima	410	2008년 1월 완공 계획	
B/X	CPC TDP No.1	LinYuan		2007년 1월 완공 계획	30-40%
B/P-X	Fujian PC	Quanzhou	300/700	2008년 상반기 완공 계획	
SM	삼성토탈	대 산	870	2007년 6월 완공 계획	200
	Do How	Canzhou	150	2005년 10월 상업가동	
	CSPC	Guangdong	550	2005년 12월 가동 예정	
HDPE	CSPC	Guangdong	200	2005년 12월 가동 예정	
	IOC	Panipat	300	2008년 1/4분기 완공 계획	
HD/LLDPE	IOC	Panipat	350	2008년 1/4분기 완공 계획	
LDPE	CSPC	Guangdong	240	2005년 12월 가동 예정	
MEG	TOC	MapTaPhut	300	2006년 5월 완공 예정	
	IOC	Panipat	300	2008년 1/4분기 완공 계획	
PTA	BP Zhuhai	Zhuhai	900	2007년 말 완공 계획	
P-X, PTA	IOC	Panipat	365/555	2005년 12월 완공 예정	
EO/EG	CSPC	Guangdong	320	2005년 12월 가동 예정	
AA	Showa Denko	Oita	130	2006년 4월 완공 계획	30
	BP-Sinopec	Nanjing	500	2007년 하반기 완공 계획	
	BP-FCFC	Mai Liao	300	2005년 11월 착공 예정	
VAM	Showa Denko	Oita	175	2006년 4월 완공 계획	55
메탄올	Shaanxi Shenmu	Yulin	200	2005년 11월 상업가동	
EPDM	Mitsui	Chiba	75	2007년 10월 완공 계획	

자료) Platt's

중국의 3대 에틸렌 합작 프로젝트인 CSPC(CNOOC-Shell Petrochemical)의 에틸렌 80만톤 콤플렉스는 12월 5일 가동예정이다.

CSPC의 Guangdong, Daya Bay 소재 콤플렉스의 생산능력은 프로필렌 40만톤, SM 55만톤, PO(Propylene Oxide) 25만톤, EO(Ethylene Oxide)/EG(Ethylene Glycol) 32만톤, HDPE(High-Density Polyethylene) 20만톤,

LDPE(Low-Density PE) 24만톤, PP(Polypropylene) 24만톤, Polyols 13만5000톤으로 알려졌다.

CSPC의 컴플렉스가 가동되면 2005년 3개의 합작 프로젝트가 완성돼 중국의 에틸렌 생산능력은 230만톤 증설돼 850만톤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일본, 중국, 인디아, 타이를 중심으로 석유화학 프로젝트가 붓물을 이루고 있으며 자칫 공급과잉과 가격하락으로 이어져 채산성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화학저널 2005/11/28>